



시모노세키시 지정유형문화재(조각)

가이조지 절 목조 성(聖) 관음보살 입상



【가이조지 절 목조 성(聖) 관음보살 입상】

가이조지 절의 본존(本尊)인 목상- 성(聖) 관음보살 입상은 1724년 사원 건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상으로, 33년에 한 번씩 공개되는 비불(비공개 비장 불상)이다.

당당한 자세로 서있는 모습과 조각의 특징으로 미루어 11세기경에 시모노세키 주변에서 제작된 불상으로 추측되고 있다. 나무를 통째로 깎아 안쪽을 도려내어 만든 불상이다. 12세기 이후에 얼굴 부분에 수정으로 만든 눈을 박아놓고 다시 깎아 다듬어놓았다. 시모노세키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 중 하나이다.

